

빅데이터 ·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 접목 다양한 서비스 '한자리'



‘정부3.0’을 통해 국민생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한 자리에서 선보였다.

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‘정부3.0 국민체험마당’에서는 정부 3.0 공개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편리해지는 생활서비스와 국민 개인의 즐거운 삶을 위한 정부3.0 맞춤형 서비스, 빅데이터·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정부3.0 서비스가 마련됐다.

정부3.0은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·공유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개방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혁신 전략이다.

전시관은 생애관(생애주기 서비스), 맞춤형관(맞춤형서비스), 데이터관(일자리와 창업), 참여관(국민참여와 소통), 열린관(정보공개), 스마트관(유능한 정부), 미래관(정부3.0 미래) 등 7개 테마로 구성됐다.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, 공공기관이 추진한 정부3.0 대표 서비스중 생활 밀착도가 높고 국민 고충 해결에 파급효과가 큰 200여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꾸며졌다.

참여관 · 생애관 · 스마트관 · 미래관 등 7개 테마로 구성 국민고충 해결 파급효과 큰 200여개 사례 중심으로 꾸며

생애주기별로 제공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체험하는 생애관에는 남편·순창 등과 같이 산간농촌지역의 산모지원 서비스나 대학·학과 관련 입시상담, 맞춤형 장학금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학입시정보 전시관(대학입시 정보 한 눈에!)이 호평을 들었다.

국민 개인의 수요 맞춤형 선제적 서비스를 선보인 맞춤형관에서는 승강기 사고와 지진을 모형 설비로 직접 체험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민 안전체험관이 재난 위험의 심각성을 알려줬고 ‘저탄소 생활체험터’에서는 ‘자전거 자가 발전기 체험’ 등을 통해 저탄소 생활화 및 정보를 전달했다.

열린관에서는 지역별 축제경비·자치단체 채무 등의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‘지방재정 365’와 자신에게 맞

는 복지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이 눈에 띄었다.

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3.0의 미래의 모습을 구현한 미래관에서는 통계를 활용한 생활밀착 맞춤형 거주지 분석서비스(‘살고 싶은 우리 동네’)가 이채로웠다.

실생활과 접목시켜 국민의 편리한 삶에 초점을 둔 서비스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.

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선보인 ‘읍면동 복지 허브화’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병원, 보건소, 복지기관, 지역주민 등이 서로 협력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특징이다.

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는 등·초본 서류신청 등 주로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 가는 곳이었지만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

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질병치료, 간병, 후원금, 생필품, 집수리 등 개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했다. 올해 933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의 ‘복지허브화’가 마무리될 예정이다.

많은 사람들의 골칫덩이인 주차의 불편함도 크게 덜 수 있다.

모바일을 통한 주차장 등록과 관리, 주차예약·요금결제까지 가능한 앱(‘모두의 주차장’)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및 6대 광역시의 4만여개 주차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공영·민영·무료 주차장이나 식당, 카페, 마트 등의 주차공간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.

특히 주차관계 장비와 시스템 연동을 통해 자동 입출차 시스템이 구축되고 모바일 앱을 통한 주차요금 결제 및 주차요금 수익 정산이 가능한게 장점이다.

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애주기별 식생활개선프로그램, 금융위원회의 통합연금포털 서비스, 국토교통부의 국민 부동산 나침반(부동산시장정보 앱) 등도 마련됐다.

/이성주기자

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두가

건강하고 행복한 장수!

Healing 여행!

장수는 심심계곡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로 발길 닿는 곳곳이 관광휴양지이며, 고랑 고랑 먹거리마다 청정장수가 주는 선물로 가득합니다.

송이체험장
와룡자연휴양림 물놀이장